

조선대 핸드볼 3인방, 세계선수권서 일난다

코로나 대유행에도 13일 이집트서 개막...안재필·김명중·강준구 출격
사실상 올해 첫 세계대회...한국 역대 최고 성적 8위 뛰어넘기 총력전

조선대학교 핸드볼 선수들이 세계핸드볼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학교 핸드볼 팀 소속 안재필·강준구·김명중이 오는 13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막하는 제27회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는 총 32개 나라가 출전해 4개국씩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다. 이후 각 조 상위 3개 나라가 본선에 진출하며 본선에서는 다시 6개국씩 4개 조로 결선 리그를 치러 각 조 상위 2개 나라가 8강 토너먼트를 벌이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러시아, 슬로베니아, 벨라루스 등 유럽 국가들과 함께 H조에 편성됐다. 강일구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이번 대회에 대학생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을 내보낸다. 강원도 태백에서 훈련 중인 우리 대표팀은 11일 출국, 14일 슬로베니아와 첫 경기를 준비할 예정이다. 2년 전 독일과 덴마크가 공동 개최한 제26회 대회에는 남북 단일팀이 출전해 24개 출전국 가운데 22위를 차지했다. 한국 남자 대표팀의 핸드볼 세계선수권 역대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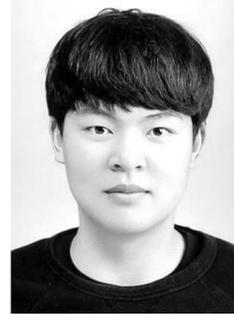
안재필

고 성적은 1997년 대회의 8위다. 1938년 창설된 이 대회 역사상 비유럽팀이 결승에 진출한 유일한 사례가 2015년 대회 카타르의 준우승



김명중

일 정도로 올해도 유럽 팀들의 강세가 예상된다. 이 대회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축구 유럽선수권대회가 연기되고, 탁구와 아



강준구

이스하키 세계선수권이 취소되는 등 주요 구기 종목의 세계선수권 또는 대륙별 선수권 대회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치러지는 사실상의 첫 세계 대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5일까지 캐나다에서 10개 나라가 출전한 세계 주니어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가 열린 바 있다. 핸드볼은 지난해 12월 덴마크에서 유럽 여자 선수권대회를 1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했다. 대한핸드볼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유럽 선수권을 진행했던 스태프들이 이번 세계선수권도 방역 등에 유의하며 행사 진행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회는 러시아가 세계반도핑기구(WADA)로부터 받은 2년간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 제한 등의 징계가 적용되는 첫 대회이기도 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온택트 사업 적극 발굴...전남체육 경쟁력 강화

전남도체육회 올해 목표는 국제대회 유치·선진 시스템 구축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건강증진 공공기관 실업팀 창단 적극 유도



성 등 역점 시책을 제시했다. 도체육회는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된 체육행사의 불용액 일부를 활용해 스마트 전자결제시스템과 전남스포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전남도체육회 및 산하 71개 회원종목단체와 22개 시·군체육회가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된다. 전남스포츠종합정보시스템은 전남체육회의 모든 기록을 데이터로 구축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체육 정보를 열람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도체육회는 전남체육 75년사를 기록할 전남체육사 편찬작업과 전남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컨디셔닝센터 개설 준비도 본격화 한다. 지난해 유지한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는 올해부터 여수시와 순천시를 비롯한 도내에서 3년간 열린다. 도체육회는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와 연계육성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 펜싱 사브르팀과 한국전력공사 육상팀의 연구이전을 성사시킨 전남체육은 올해도 공공기관 실업팀 창단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실업팀 창단과 공공스포츠클럽의 추가 운영은 초·중·고·대·실업으로 이어지는 연계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남에서 태어나 평생 고향에서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이클 이혜진, 코로나에 빼앗긴 세계 1위

한국 여자경륜 첫 월드컵 금 등 기량 절정일 때 제대로 못 달려 국제대회 출전 못해 3위로 하락

한국 트랙 사이클의 간판 이혜진(29·부산지방공단스포윈)이 절정일 때 제대로 달려보지도 못하고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내려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발목을 잡힌 탓이다. 이혜진은 국제사이클연맹(UCI)이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년 첫 세계랭킹에서 여자 경륜 3위를 차지했다. 이혜진은 지난해 3월 1일자 랭킹에서 처음으로 여자 경륜 1위에 오른 이후 12월 30일까지 1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엘라나 카사트키나(스페인)가 1위, 레아 조피 프리드리히(독일)가 2위로 올라오고 이혜진은 3위로 내려앉았다. 이혜진은 세계랭킹 1위에 올랐을 때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었다. 2019년 11월 민스크 월드컵 은메달, 12월 홍콩

·뉴질랜드 월드컵에서 2주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지난해 3월 독일에서 열린 2020 세계트랙사이클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여자 경륜 세계 최강으로 올라섰다. 월드컵 금메달은 한국 여자 경륜 최초, 세계선수권 은메달은 한국 사이클 역대 최초 쾌거였다. 이혜진은 이 기세를 몰아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사이클 역대 최초 메달을 노렸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제대회가 줄줄이 취소되고 올림픽도 1년 연기됐다. 이혜진은 스위스 전지 훈련 계획까지 취소하고 국내에서만 훈련했다. 지난해 6월과 9월 2020 KBS 양양 전국사이클 선수권대회와 8·15 경축 2020 양양 전국사이클대회 등 국내에서 열린 대회에서 여자 단거리 부문을 휩쓸었지만, 국제대회에는 전혀 출전하지 못했다. 이혜진은 절정일 때 패달을 마음껏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른 선수들에게 랭킹 포인트를 추월당해 세계 최정상 자리를 내줬다. 이혜진은 현재 국가대표팀 강화 훈련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한국 트랙 사이클 간판 이혜진.

김용기 전 시체육회 부회장, 광주시소프트테니스협회장 당선

김용기(64·사진) 전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광주시소프트테니스협회장에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지난 6일 광주시소프트테니스협회장 선거에서 총 30명 투표인 중 16명의 지지를 받아 경쟁자인 김병희 후보를 제쳤다. 김 당선인은 2021년 정기총회일부터 2025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4년간 통합 3대 광주시소프트테니스협회장으로 활동한다. '소통·협력·발전'을 기치로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 당선인은 생활체육 동호인과 지도자, 선수 등으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여고팀 창단 추진 ▲정구 꿈나무 발굴 및 육성 ▲동호인 활성화 적극 추진 ▲중흥정구장 이전 추진 ▲생활체육·전문체육 부회장제 운영 ▲시·구체육회와 협력 관계 구



축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담양 출신인 김 당선인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정구인들의 역량을 결집해 광주정구협회가 전국에서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광주정구연맹 부회장, 국민생활체육 전국정구연합회 부회장, (사)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이사, 2015광주세계U대회 조직위원,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자프로테니스 시즌 첫승 주인공은 카사트키나

아부다비 오픈서 왕창에 2-1 승리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2021시즌 첫 승의 주인공은 다리아 카사트키나(72위·러시아·사진)가 됐다. 카사트키나는 7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WTA 투어 아부다비 오픈(총상금 56만5530 달러) 대회 첫날 단식 본선 1회전에서 왕창(34위·중국)을 2-1(6-2 3-6 6-2)로 물리쳤다. 이 대회는 올해 WTA 투어의 시즌 개막전으로

열렸으며 단식 본선 첫 경기에서 카사트키나는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다. 2018년 세계 랭킹 10위까지 올랐던 카사트키나는 왕창과 상대 전적에서도 5승 1패 우위를 이어갔다. 카사트키나는 카를리나 무호바(27위·체코)와 단가 코비치니(77위·몬테네그로) 경기 승자와 16강 진출을 다룬다. 2021시즌 개막전이 이 대회에는 지난해 WTA 투어 올해의 선수로 뽑힌 소피아 케닌(4위·미국)이 톱 시드를 받았고, 엘라나 스비톨리나(5위·우크라이나)가 2번 시드로 나왔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원더 우먼 1984
2관	신과함께-죄와 벌
3관	미스터 존스, 도굴
4관	원더 우먼 1984, 러브 액츄얼리
5관	원더 우먼 1984, 빅풋 주니어2: 패밀리가 떴다
6관	원더 우먼 1984
9관	걸, 조제
7관 씨네키움	안벽한 가족, 런 마라톤 큰 결정을 해야 해
8관 씨네키움	이웃사촌, 러브 액츄얼리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 국악상설공연

창작공연 작품공모

2021 광주국악상설공연 창작공연작품을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국악공연에 관심이 있는 예술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1. 1. 11.(월) ~ 1.20.(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10:00 ~ 17:00)
접수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지원과
문의 | 062-613-8379